



진안군, 6.25 호국영웅 유가족에 무공훈장 전수

진안군은 23일 6·25전쟁 참전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과 공적을 기리기 위한 무공훈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수식은 6·25전쟁 당시 육군 제5사단 제35연대 소속으로 참전에 뚜렷한 전공을 세운 고(故) 오재춘 대위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인의 자녀인 오철현 씨를 비롯한 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故) 오재춘 대위는 1929년 6월 15일 출생해 1948년 6월 20일 입대했으며, 6·25전쟁 기간 동안 최전선에서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며 국가 수호에 헌신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63년 12월 18일 당시 계급 상사로서 금성훈장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이후 1954년 장교로 임관해 1969년 8월 31일 대위로 예편할 때까지 군에 복무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빠른물류, 전주시 노송동 일원서 연탄나눔봉사

전주시 금암동 소재의 '유한회사 빠른물류(대표 최병원, 서영태)'는 23일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노송동(동장 채월선) 일원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연말 한파에 대비해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빠른물류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3세대에 연탄 1,200장을 전달하고 인부를 실었다 /권희성 기자



전은 지역사랑봉사단, 사랑의 연탄 나눔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이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지난 22일 전주시 군경도지 일대에서 '2025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전원, 제65기 신입행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의 추천을 받아 독거어르신 등 10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3,000장과 생필품을 직접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연수 기간 중 봉사활동에 참여한 제65기 신입행원들은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지역사회 나눔의 의미를 몸소 체험했다 /오상근 기자



전기공사협회 전북, 무주군에 생필품 전달

무주군은 지난 22일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가 처약, 처술, 리본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생필품 60박스(박스 10만원, 총 6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선물은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에서 3백만 원, 무주군 전기협회에서 300만 원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기탁식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관계자 5명이 자리해 훈훈함을 더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어르신들의 생애 이야기, 함께 나누다

'전북의 맥, 전북 사람' 출판기념회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시간을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한 세 번째 생애구술 기록집 '전북의 맥, 전북 사람'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도는 23일 전주 그랜드힐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빛나는 도서관 사업 출판기념회'를 열고, 전통과 생활문화, 공동체를 지켜온 어르신들의 생애 이야기를 도민과 함께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박정규 문화안전소방위원회의 위원장, 박용근 도의원을 비롯해 사업 참여 어르신과 가족, 집필진 시군 문화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출판기념회는 올림픽 홍보영상 상영과 도립국악원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되어 축사, 생애구술사 전달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오랜 시간 지역을 지켜온 어르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자리인 만큼, 행사장은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채워졌다. '빛나는도서관' 사업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을 지켜온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구술로 기록해 책으로 남기는 생애사 기록 사업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을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 축적하고, 미래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이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은 지역이 쌓아온 시간의 기록"이라며 "빛나는도서관 사업을 통해 전북의 맥이 사람을 통해 이어지고, 그 이야기가 다음 세대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전북의 맥, 전북 사람'은 도내 시군 도서관과 문화원 등에 비치될 예정이며,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으로도 공개된다. /오만호 기자



이숙자 남원시의원,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 우수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 세미나 &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지난 12월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수상했으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정책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과 실효성을 종합한 것으로, 이숙자 의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 실질적인 정책 제안, 지방자치 발전 기여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평소 지역 현안을 직접 발로 뛰며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민주평통 전북, 2025년 전북지역 활동평가회 개최

모범 자문위원 표창 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김영복)는 지난 22일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전북지역 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북지역 활동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북지역회의는 2025년 전북지역 14개 시군에서 추진한 통일활동사업을 평가하고, 지역사회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모범 자문위원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표창, 민주평통 전북부회장 표창을 수여했다. 김영복 전북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모범자문위원 표창을 수상자에게 축하를 전했다. "남북 관계가 여전히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헌신하시는 자문위원이 계신 덕분에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은 전주시협의회 이상빈 위원을 포함하여 15명의 자문위원이 수상하였으며, 전북도의회 의장 표창 5명, 전북부회장 표창 15명의 자문위원이 각각 표창을 수상했다. /오만호 기자



남원시, 내년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공모 선정

남원시는 '2026년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 9천만 원의 예산으로 결혼이민자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립·취업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직업 사전교육 후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김미옥 여성가족과장은 "본 사업을 통해 단순 노동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숙련된 직업훈련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찬도 가족센터장은 "신규사업을 통해 더 많은 결혼이민자가 전문성을 발휘하고 취업과 창업에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장수군지부, 장수군에 장학금·백미기탁

장수군은 NH농협 장수군지부가 23일 지역인재 육성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장수군배향교육진흥재단에 장학금 200만원과 330만원 상당의 백미(20kg) 5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역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추진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의료원-전은 남원지점, 방한 키트 나눔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은 지난 22일, 전북은행 남원지점(지점장 박은영)과 관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25 방한 키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JB금융그룹 전북은행 창립 56주년을 맞아 기획됐다. 방한 키트는 남원의료원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중 생활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 20가구에 전달.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직접 대상자의 가정을 살피며 정서적 안부를 묻는 등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창의·예술 미래교육 거점 '누리고' 개관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23일 오후 2시 30분, 지역 학생들의 창의력·감성·미래역량을 키우는 고창 창의·예술 미래공간 '누리고' 개관식을 열고 미래형 교육 플랫폼 운영을 본격화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고창 교육가족과 지역 문화예술인,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간 소개, 학생 축하공연, 시골 라운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누리고'는 락밴드, 드럼, 도예, 웹툰, 댄스, 학생 동아리, 관소리, 학생회, 북가페,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등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복합 문화·예술·창의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고창=김영성 기자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협업 역량, 예술적 감성, 디지털 리터러시를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숙경 교육장은 "누리고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탐구하며 창작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열린 미래교육의 장"이라며 "학교와 지역, 예술과 과학, 디지털과 감성,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지는 고창형 미래교육 모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창교육지원청은 '누리고'를 학교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성 기자

에코시스텍 김두원 대표,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

(주)에코시스텍의 김두원 대표가 23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서 김두원 대표는 "부모님이 나고 자라 지금까지 살고 계신 고향이자 제 마음의 안식처인 무주가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라며 "오늘 전달된 기부금이 무주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지난 2024년에는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한편, (주)에코시스텍은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수질 분석 및 계측기기 전문기업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부림석재, 남원 도동동에 성금 기탁

남원시 도동동 관계자는 관내 부림석재(대표 정영국)가 지난 22일,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행정복지센터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부림석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성금과 물품을 기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왔으며, 꾸준한 나눔은 남원시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해 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N드론방재단, 오수면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임실N드론방재단(단장 이명재)이 23일 연말을 맞아 오수면사무소를 방문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방재단에서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자 이웃돕기성금을 기탁하게 됐다. 임실N드론방재단은 2022년부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500ha에 달하는 광범위한 벼 병해충에 드론 방제를 수행해 왔다. 이를 통해 450여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며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 왔다. /임실=진홍영 기자

운봉 로타리클럽, 연말 생활필수품 나눔

남원시 운봉읍은 관내 로타리클럽(회장 최태운) 회원 20여명이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며 커피와 화장지(환가액 2000원)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 하겠다고 밝혔다. 운봉 클럽은 해마다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 이웃돕기 나눔 행사, 초중고학생 장학금 지원, 마을 진입로 제조작업, 시가지 환경정비 등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